

제8회 여성주간 기념식 연설

존경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로 여덟번째 맞는 '여성주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단체와 유공자 여러분께도 각별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맨 먼저 참석한 행사들은 학군장교 임관식과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성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사관학교에서도 신선한 여성 참여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이처럼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실력으로도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여성 생도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여러 국가고시에서도 여성들의 합격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고, 수석을 차지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

하고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48%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을 55%까지 끌어올리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시·공간개혁, 문화혁신, 그리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도약과 지방화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 가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여성의 참여와 기여를 '신성장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은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 비율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 있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관리직 여성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5.2%에 불과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3년 이내에 10% 수준까지 늘려 나갈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와 행정을 비롯한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적 분야에서의 여성 진출은 이미 권리의 차원이 아닌 국가와 기업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이고 범정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작년 선거 때 저는 '아이를 마음놓고 낳으십시오. 노무현이 키워 드리겠습니다'

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이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보육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육지원'을 2004년 국가재원 배분의 중점분야로 선정했습니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현재의 25%에서 임기 내에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을 사회적인 가치와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입니다.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과 차별의 풍토가 아직도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성평등,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라는 이번 여성주간 주제에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성주간이 남성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여성문제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풀어나갈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저와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겠습니다. 우리 여성의 힘과 열정으로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해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제8회 여성주간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여성계의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